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11

JCCT 2024-1-2

##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및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an animal-assisted therapy program o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윤주\*, 김옥진\*\*

Lee Yun Ju\*, Kim Ok Ji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정서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관하여 동물을 매개로 한 치료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연구대상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아동으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 항목별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발달장애 아동은 비참여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정서 발달의 전체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z=-2.20, p<.05$ )를 보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교사에서의 비의존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냈다. 둘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발달장애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효과( $z=-2.20, p<.05$ )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정서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동물매개치료, 사회정서발달,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발달장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animal-mediated therapy program 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 social skills related to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learning, which are important in modern societ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a special school, and the animal-mediated therapy program consisted of 12 sessions. The study wa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nd conducted pre- and post-test by measurement items. SPS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rs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animal-mediated therapy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 $z=-2.20, p<.05$ ) in the overall social-emotional develop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s were found in the subfactors of non-dependence on teachers, interaction with peers, and achievement motivation.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animal-mediated therapy showed a significant effect ( $z=-2.20, p<.05$ ) in all factors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 conclusion, animal-mediated therap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nhance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a healthy life.

**Key words** : Animal-Assisted Therapy, Social-Emotional Development,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Developmental disability

\*정회원,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농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정회원,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농학과 지도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4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4,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imoj@daum.net

Dept. of Graduate School of Agronomy, Wonkwang University, Korea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개인과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하고 구조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미성숙한 개인이 체계화된 교육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로 성숙해야한다 [1]. 사회적인 능력인 사회성, 사회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소통기술을 두루 일컫으며,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은 인간의 생애 발달단계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에 습득하게 되며, 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정서 발달은 애착관계 형성, 자율성과 조절성,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사회성 요인과 감정을 생성하거나 인지하여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 지능과 관련된 정서조절 능력과 같이 정서요인의 발달을 전체적으로 의미한다 [3-5]. 또한 적절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6], 이를 건설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되는 부정적인 경험에도 유연하고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7]. 더 나아가 사회, 정서적 능력은 사회적 기술까지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하다 [8].

사회적 기술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친사회적 행동능력을 주로 뜻하며, 이를 다양한 연구에서 의미를 구체화하여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과 상호작용에 집중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9-10]. 사회적 기술의 다양한 요인 중 숙달, 자기주장, 자기조절, 협업부분과 같은 요인이 학습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학습과 관련된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분류하여 별도로 정의된다 [11]. 이처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은 별도로 대인관계와 연관된 사회적 기술과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은 유아가 학습적 부분에 연관되는 학습태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에 중점을 두며, 일차원적인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인지능력에도 영향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12].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에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다양한 전반적인 부분(신체, 지능, 언어, 사회성)의 제한적인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환

경에 관한 적응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13]. 또한 소속감을 경험하고 성장하며 배우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또래관계에서 거부,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는 정서부분의 내적고통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문제행동들로 외부적으로 발현된다 [14].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조기 발견하여 더 부정적인 결과로 가기 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동물매개치료는 역동적인 생명체인 동물과 하기에 기존의 정적인 매개와 특이성을 보이며, 대상자에 목적에 맞게 실행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심리상담의 한 방법이다. 또한 인간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발현되는 상생되는 상호보완적인 작용으로 모든 대상의 행복과 복지를 지향한다는 특성이 있다 [15].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로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향상에 관한 연구, 동물을 매개하여 통합예술을 접목하여 아동 대상으로 정서지능 및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6-19]. 이처럼 동물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들의 사회정서발달 그리고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른매개를 활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20-23]. 하지만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정서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며,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으며, 구체적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시 소재의 H 학교의 3, 4학년의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과 생활연령을 고려한 뒤, 과거 유사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으로 총 12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첫째,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아동, 둘째, 해당 치료도우미 동물에 공포감이 없는 아동, 셋째, 프로그램 진행 시 신체 움직임과 이동에 프로그램 진행에 무리가 없는 아동, 넷째, 무발화가 아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사전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 절차로 진행하였다<표 1>.

표 1.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연구대상자 특성  
 Table 1. Animal Therapy Program Study Subject Characteristics

성별	생활연령	장애등급 (지적)	생활 특성
여	10.6	2	단어 및 짧은어절 사용 친사회적인 성향
여	8.07	1	관심을 위한 중동적 행동표출 친구의 칭찬 비선호
남	11.0	1	손을 이용하는 활동 선호 외부활동에 적극적인 반응
남	10.6	2	신체를 활용한 과장된 표현으로 상호작용 반복
남	10.5	1	학교 시설 기물을 활용한 의사표현 선호
여	9.7	2	큰 소리에 대한 민감 외부 반응에 반응성 강함
남	10	2	관심과 주목에 긍정적 소리를 활용한 표현에 적극적 감정표현 어려움
남	10	2	말과 표정으로 감정표현 가능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공격적 표출
남	10	2	사교적이며 모방 활동을 잘함 자신의 감정을 표정과 의사로 적극적으로 표현

남	11	1	감정표현에 어려움 모방행동 활발
여	9	2	산만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 적극적으로 자기표현 가능
여	9	2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시 어려움 자기 주도적, 자립적인 성향 뚜렷

### 2. 연구도구

#### 1) 사회정서 발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정서 발달 측정 도구는 한국 행동과학연구소(허영등, 1978)에서 개발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평정척도”를 이기숙·이은혜(1983)가 수정하여 연구한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서 발달 평정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의 비의존성, 내적 통제,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 학교(기관)에서의 안정감, 성취동기, 호기심 등 총 6개 하위변인으로 분류된다. 김미숙(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Cronbach  $\alpha$  계수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정서발달 검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2)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측정 도구는 상호작용 능력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Rating System) 평가하는 중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Gresham & Elliott, 1991). 위 검사는 빈도에 대하여 각 3점씩의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측정도구의 개발당시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의 경우 동일하게 .94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윤리적 사항

본 연구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주 1회씩 12회기를 실시하여 총 총 12주간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당 40분씩 진행하였다. 동물매개치료에 참여하는 아동의 연구윤리에 입각하여 참여에 불편한 경우 자유의사에 의해 상시 프로그램 참여 철회가 가능한 것을 고지하였으며, 대상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를 사전, 사후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갖춘 연구자와 동물매개 심리상담사 1급이거나 2급의 자격을 갖춘 동

물매개 심리상담 전문가,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이 보조 진행과 관찰자로 참여하였으며,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위하여 프로그램과 사전교육과 임상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치료도우미견과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주관하는 치료도우미동물 평가인증을 받아 입증된 치료도우미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였으며 연구심의 결과통보를 받아 진행되었으며(IRB 승인번호: WKIRB-201804-SB-025),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진행되었다.

#### 4.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 25.0과 SPSS PROCESS Macro(v4.0) (Hayes, 201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집단별 사회정서 발달검사와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검사의 사전과 사후 검사에 따른 결과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 집단 간 사회정서 발달의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 통제집단 두 집단의 사회정서 발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회정서 발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표 2>.

표 2. 대상 집단 간 사회정서 발달의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2. Validate prior homogeneity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cross subjects

구분	대상 및 인원(n)	Mann-Whitney U	z	p
전체	실험(6)	15.50	-.402	.68
	통제(6)			
교사에서의 비의존성	실험(6)	17.00	-.161	.87
	통제(6)			
내적통제	실험(6)	7.00	-1.76	.07
	통제(6)			
또래와의 상호작용	실험(6)	11.50	-1.05	.29
	통제(6)			

학교에서의 안정감	실험(6)	9.00	-1.44	.14
	통제(6)			
성취동기	실험(6)	10.00	-1.28	.19
	통제(6)			
호기심	실험(6)	13.00	-.808	.42
	통제(6)			

$p > .05$

(N=12)

#### 2.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구 문제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사회정서 발달 척도의 사전과 사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사전 평균 159.66에서 사후 평균 187.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20, p < .05$ ). 그리고 6명의 사회정서 발달 점수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시행 이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정서 발달의 각 하위변인 결과의 경우, 교사와의 비의존성은 사전검사 평균 20.66에서 사후 검사는 평균 24.50로 증가하였으며( $z = -2.03, p < .05$ ),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사전 평균 23.50의 수치에서 사후 평균 30.00로 사전결과가 사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z = -1.99, p < .05$ ). 그리고 성취동기의 경우 사전 평균 26.16에서 사후 평균 33.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z = -2.21, p < 0.05$ ). 하지만 앞서 언급한 3가지 요인을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내적통제의 경우, 사전 평균 31.83에서 사후 평균 35.50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 $z = -1.47, p > .05$ ), 호기심 또한 사전의 경우, 평균 26.60에서 사후 평균 37.16으로 사후검사가 사전보다 향상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91, p < .05$ ). 마지막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안정감 부분의 사전검사는 평균 31.50에서 사후검사 평균 37.16으로 점수는 향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 = -1.36, p > .05$ ).

앞서 언급한 결과에 따라,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 실시한 실험집단의 경우 사회정서 발달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별 세부적인 검증에서는 교사와의 비의존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동기 부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회정서 발달의 사전과 사후의 결과를 분석하면 사전검사 평균 167.50에서 사후검사의 평균 170.66으로 나타나며, 유의미한 수치가 없었다 확인된다( $z=-1.57, p>.05$ ). 이처럼 사회정서 발달의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사회정서 발달과 하위변인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Table 3. Pre-post validation results by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sub-variables

구분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전체	실험	159.66	18.67	187.00	18.57	-2.20	.02*
	통제	167.50	12.75	170.66	14.54	-1.57	.11
교사와의 비의존성	실험	20.66	7.58	24.50	7.34	-2.03	.04*
	통제	19.00	2.44	19.16	2.31	-1.00	.31
내적통제	실험	31.83	7.30	35.50	6.34	-1.47	.14
	통제	25.83	4.49	26.00	4.09	-1.00	.31
또래와의 상호작용	실험	23.50	4.13	30.00	5.47	-1.99	.04*
	통제	25.83	2.92	25.50	2.34	-.53	.59
호기심	실험	26.60	5.44	37.16	6.11	-1.91	.066
	통제	31.16	5.60	37.00	5.69	-1.36	.17
학교에서의 안정감	실험	31.50	8.28	37.16	6.11	-1.36	.17
	통제	36.83	6.55	37.00	5.69	-.44	.65
성취동기	실험	26.16	6.21	33.66	6.05	-2.21	.02*
	통제	28.83	4.35	27.33	6.83	-.44	.65

### 3. 대상 집단 간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사전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 통제집단 두 집단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도출 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표 4>.

표 4. 대상 집단 간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4. Validate prior homogeneity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across subject populations

구분	대상 및 인원(n)	Mann-Whitney U	z	p
전체	실험(6)	12.50	-.89	.37
	통제(6)			
협력기술	실험(6)	17.50	-.08	.93
	통제(6)			
자기주장	실험(6)	11.50	-1.05	.29
	통제(6)			
자아통제	실험(6)	6.50	-1.88	.06
	통제(6)			

$p>.05$

(N=12)

### 4.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미치는 영향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구 문제에 관해 사전과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 통제집단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사전, 사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평균은 사전 27.33에서 사후 결과 42.50 ( $z=-2.2, 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위변인 별로 협동기술의 사전값의 경우, 평균 8.50에서 사후 평균 14.83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고 ( $z=-2.23, p<.05$ ), 자기주장 요인의 사전 실시한 평균 8.00에서 사후 평균 13.83으로 증가되었다( $z=-2.22, p<.05$ ). 자기통제 또한 사전 평균 10.83, 사후 평균 13.83으로 사전보다 사후 점수가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 $z=-2.02, p<.05$ ).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평균 20.83, 사후 평균 22.16으로 ( $z=-1.08, p>.05$ ) 나타났으며,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 중 협력기술, 자기주장 그리고 자아통제 세 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 변화를 측정하기는 어려웠다<표 5>.

표 5.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사전·사후 결과  
Table 5.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Pre-Post Results

구분	집단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전체	실험	27.33	15.95	42.50	11.99	-2.201	.028*
	통제	20.83	4.95	22.16	5.41	-1.089	.276
협력 기술	실험	8.50	5.78	14.83	3.43	-2.232	.026*
	통제	8.16	2.48	9.50	2.58	-1.51	.129
자기 주장	실험	8.00	5.76	13.83	6.08	-2.226	.026*
	통제	5.50	2.25	5.16	2.63	-.408	.683
자아 통제	실험	10.83	4.87	13.83	3.86	-2.023	.043*
	통제	7.16	1.16	7.50	1.87	-.535	.593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동물매개 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적 사회적 기술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프로그램에 불참여한 집단보다 전체적인 사회정서 발달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위 결과는 실험집단의 교사와의 비의존성, 또래와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성취동기 요인의 점수가 높아진 것을 검증하며,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하위변인의 협력기술, 자기주장, 자아통제 점수가 높아져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 사회정서 발달의 하위요인의 내적통제 및 호기심, 학교에서의 안정감이라는 변인에 유의미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하위요인을 이끌어내기에 해당 연구기간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물매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동물과 교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동물매개, 동물교감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전체적인 부분의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나 세분화된 요인에서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정서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동물매개프로그램의 적용 및 개발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첫째, 관련 연구는 C 소재의 H 학교의 발달장애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은 하위요인들의 보완하는 연구와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위해 다양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으로 응용하여 관련 분야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E. Durkheim, "Eduvation and Socilogy", New York. NY : The Free Press, 1956.
- [2] C. A. Brownell, C. B. Kopp, "Transitions in toddler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Vol. 1, No. 40, 2007.
- [3] J. D. Mayer, D. R. Caruso and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1997.
- [4] H. I. Kim, "Developing the Social-Emotional

- Developmental Equanimity Scale for 2-year-olds infants.”, D. Dissertation, Deoksung Women’s University, 2010.
- [5] H. Y. Gong, J. S. Kim, “Effect of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Sociality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 261–267, 202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3.9.2.261>
- [6] E. K. Kim and S. L. Kim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s on Their Leadership,”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169 - 175, 2019, Doi: <https://doi.org/10.17703/JCCT.2019.5.1.169>
- [7] Y. J. Lee, K. H. Kwak and J. S. Choi, “The Effect of The traditional nursery Rhyme Play on Communication,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Playfulness of 2 year old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 21, No. 2, pp. 173–197, Doi: <https://doi.org/10.21183/kjcm.2022.06.2.1.2.173>
- [8] W. J. Monopoli and S. Kingston, “The relationships among language ability,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second-grad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36, No. 5, pp. 398–405, 2012. Doi : <https://doi.org/10.1177/0165025412446394>
- [9] S. M. Kim, “Effects of Animal-Mediated Therapy o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Response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utism Spectrum Disorder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2.
- [10] Y. M. Jeong, “The Effect of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Happiness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4, pp. 223 - 228, Jul. 202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3.9.4.223>
- [11] H. J. Oh,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gender-specific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skills related to infants’ learning.” Master’s thesis, Kyungmyeong University, 2012.
- [12] J. L. McClelland and T. T. Rogers, “The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approach to semantic cognit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Vol. 4. No. 4, pp. 310–322, 2003. Doi: <https://doi.org/10.1038/nrn1076>
- [13] C. S. Kim, *Abnormal Psychology*. Gyeonggi Province: Cybooks, 2016.
- [14] B. Seo, J. Choi, and hyun-hwa Kim,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car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9, no. 1, pp. 175 - 181, Jan. 202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3.9.1.175>
- [15] O. J. Kim, “Animal-Mediated Therapy and Psychotherapy.” Seoul: Same. 2013.
- [16] W. K. Gang,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self-esteem and socialization of low-income children.”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5.
- [17] E. K. Lim and O. J. Kim, “Effects of an animal-mediated interven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kills.” *Korean Journal of Animal-Mediated Psychotherapy*, Vol. 4. No. 2, pp. 51–63, 2015. Doi : <http://www.dx.doi.org/10.16896/kaaap>
- [18] H. J. Jo, W. G. Kang and O. J. Kim, “The Effects of Animal Assisted Therapy on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f Youth with difficulty adjusting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7, No. 6, pp. 47–71, 2020,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0.06.27.6.47>
- [19] H. J. Cho, “Effects of Animal-Mediated Therapy on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with School Adjustment Difficultie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9.
- [20] Y. S. Jang, “Effects of Animal-Mediated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Emotion, and Self-Esteem in Older Adults with Mild Neurocognitive Impairment.”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22.
- [21] M. Y. Lee and J. J. Kim “The Effect of Outdoor Plays with Natural Toys on Toddler’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Abilities,”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 16, No. 4, pp. 107–131, Doi: <https://doi.org/10.21183/kjcm.2017.12.16.4.107>
- [22] B. M. Park and I. S. Choi, “The Effects of Cooperative Art Activities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0, No. 3, pp. 43–68, 2014, Doi:<https://doi.org/10.24159/joec.2014.20.3.43>
- [23] J. J. Ko and I. S. Choi, “The Effect of Cooperative Activities Based on STAD Model on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4, No. 4,  
pp. 223-241, Doi: <https://10.20972/kjee.24.4.201312>.  
223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원광대학교 보건·보  
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을 수정·보  
완한 것임
- ※ 본 연구는 2023년 원광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  
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